

데면데면, 비대면, 대면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 다시 읽는 율가-

김수정*

1. 들어가며: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개의 시간과 늑대의 시간으로

코로나(COVID)¹⁾ 시대는 우리들을 기존의 사회관계망으로부터 해체시킨 후 불안정한 미지의 세계 속으로 들이밀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기는 안전망이 사라진 자리에 그 동안 방치해 놓았던 누룩들이 여기저기서 실체를 드러내는 시간(눅 12:2)이며, 공적 지위를 고려해서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간이기도 하다. 공적 공간에 머무는 시간과 사적 공간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이합집산을 통해 조화를 이루던 때와 달리, 코로나 시대는 차단과 고립, 불안과 소문의 난무 속에서 사회 전반에 불균형을 증폭시켰다. 이 불균형의 증폭으로 사라진 것이 바로 다양한 그룹들 간의 완충지대다. 우리 사회는 이제 팬데믹(pandemic)에서 엔데믹(endemic)을 향해 나아가는 듯하지만, 이 시기가 생산해 낸 비대면 문화와 계속되는 불안정한 분위기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체면을 비롯한 많은 사회 문화적 옷들을 입고 있을 여유가 없는, 아니 어쩌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믿는 민낯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인내심과 체면문화가 동시에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 미국 센트럴 신학대학원 겸임교수, 구약학

1) COVID-19는 “**CO**rona **V**irus **D**isease 2019”의 약자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중화된 용어이다.

것은 마치 개와 늑대의 시간을 형성하던 어스름한 일몰의 구름대가 점점 얇어지는 현상을 보는 듯하다. 코비드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합의의 코드를 사용할 일이 점점 줄어들자, 개는 개의 모습으로 늑대는 늑대의 모습으로 각자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현상이 조금씩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항공여행이 재개되면서 공공질서의 예의를 잊어버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 승객들이 만들어 낸 문화행태들이 심심치 않게 불거져 나오는 것 역시 이런 현상의 한 예다.

욥기의 도입부를 읽는 경험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다. 욥기 1장과 2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천상회의는, 하나님을 뵙는다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전율했던 이사야 선지자나 계시록 저자의 독특한 경험을 강조하는 비전 리포트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올곧은 믿음을 지닌 의로운 한 인간과 그의 가족을 “깨닭 없이” 파탄으로 몰고 간 회의장면을 내레이터가 생중계 하듯 전달한 내러티브이다. 이 비밀 아닌 비밀회의의 한복판에 누가 있었는가? 누가 재난에 재난을, 폭격에 폭격을 퍼부어 한 인간을 재기 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일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는가? 바로 그 의로운 인간이 목숨만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의 신이지 않았던가! 이 글은, 몰랐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책의 첫 장에서부터 알아버린 후, 출구를 잃어버린 독자들에게 함께 다시 길을 모색해 보자는 필자의 초대장이다. 또한 이 글은, 에둘러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양, 야훼의 민낯을 보여주는 욥기 저자로 인해 불편한 진실 앞에 노출당한 독자들을 위로하려는 필자의 작은 노력이기도 하다.

여전히 대답보다 질문이 많은 책, 욥기.²⁾ 이 욥기가 진지하게 그 책을 펼치는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억지스러운

2) 욥기를 읽는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는, David J. A. Clines, “Why Is There a Book of Job, and What Does It Do to You If You Read It?,” in *The Book of Job*, ed. W. A. M. Beuken, BETL 114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4) 14-17. 그 동안의 욥기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하경택, “욥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1:4 (2015), 264-301;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3-31 등을 참조할 것.

도전을 왜 단칼에 무시하지 않으셨을까? 그의 도전을 용납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 불리할 것 같은 천상의 이야기를 책의 첫 부분에 보관 듯이 적어 놓은 율기 저자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율기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나? 율기의 중요한 관심 주제 중의 하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일 텐데, 사탄, 율, 율의 동료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좀 답이 찾아질 것인가? 율이 신을 향한 자신의 올곧음을 지켰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저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율을, 그리고 율기의 하나님을 여과 없이 우리 현실에 동일시하여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 교회와 신학교에서 오늘도 행해지고 있을 율기에 대한 많은 설교들과 강의들을 위해 우리가 신학 교육적 차원에서 짚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많은 질문들보다 더욱 강하게, 글을 쓰는 내내 필자를 붙들고 있던 절박한 질문이 있다: “하나님,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저는 당신의 마음속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필자는 코비드 위기로 인해 대중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개념을 도입하여 율기의 도입부를 읽을 것이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대적 아이디어를 빌려오지만,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메시지는 사실 율기가 정경 속으로 들어올 때부터 율기 저자가 본문에 담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이기에, 독자와 함께 하는 이 여행은 발견하는 여행이라고 해야 옳다.

논지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율기, 메타버스, 광염소나타>에서 우리는 가상현실 개념을 이용하여 율기의 본문, 율기의 도입부 1-2장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읽음으로써 율기의 장르를 새롭게 이해할 것이다. <“네 손에 맡기노라”: 상황적 딜레마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주-종 관계가 불리운 필연적 결과인가?>에서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 율을 고난에 빠지게 한 야훼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쉬어 읽기 시간에 만나는 새로운 관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에서 우리는 이제 더욱 확연

해진 욥기의 하나님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신학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고민한다. 욥기가 정경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는 요한복음 15:5의 구절이 암시하듯, 욥기가 보여주는 신-인간 관계를 넘어서 욥기가 보고 싶었을 신-인간관계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2. 욥기, 메타버스, 광염소나타

욥기는 우스 땅에 사는 굉장한 인간 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³⁾ 순전하고 흠이 없으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바로 욥이라고 내레이터는 당당하게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욥의 인격에 대해 독자들이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 달라는 저자의 부탁이기도 하다.⁴⁾ 평소에는 이 네 가지 덕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상적인 인간 욥의 하루하루를 복된 나날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욥의 이 순전함은 돌연 불평등하고 부당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그 주인의 인생을 밑바닥부터 흔들어 대고 괴롭히는 무기로 작용하며 욥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강한 모티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려내는 동선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그들이 말로 뽑어내는 세계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여느 액션 영화 못지않게 드라마

3) 발렌타인은 욥기의 무대인 우스라는 땅을 창세기 2-3장의 에덴동산과 비교하면서 그 땅이 에덴동산과 마찬가지로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Samuel E. Balentine, *“Look at Me and Be Appalled”: Essays on Job, Theology, and Eth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90 (Leiden: Brill, 2021), 12.

4) 현창학은 서언에서의 이러한 강조점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의 도덕성과 상관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창학, “욥기 1-2장에 나타난 욥의 고난의 성격,” 『신학정론』 36:1 (2018), 89.

틱하고 화려하다. 이는 율의 이야기를 메타버스 세팅에 쉽게 접목시킬 수 있게 하는 장점이기도 하다. 만약, 율기의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오늘날처럼 시뮬레이션 장치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율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실험해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런 상상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만큼, 율의 사정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공감에서 비롯되는 안쓰러움과 속상함, 억울함 때문이라. 모두가 시뮬레이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스마트 안경 하나씩 착용하고, 1번 버튼을 눌러 반항하는 율을 관찰하다가 2번 버튼을 눌러 인내하는 율을 바라보고… 마치 배심원 역할을 하는 듯이 지켜보는 천상회의의 참석자들을 포함해 모두가 그럴 수 있었다면! 그러면, 율이 자녀들을 잃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율이 모든 재산을 잃고 잣데미에 앉아 쾅한 눈으로 그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다 무엇이냐고 부질없다며 돌아서려다가, 필자는 메타버스 세계에 있는 율기 저자를 상상해 본다. 율기 자체가 시뮬레이션의 상상력을 이용하여 세팅된 작품일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시도조차 해 보지 않느냐며, 우리 현대인들의 좁은 상상력을 향해 웃고 있는 저자의 모습 말이다.

메타버스(Meta-Verse)란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그의 소설 *Snow Crash*⁵⁾에서 사용하러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세계를 묘사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서성은은 메타버스의 개념을 “우주 안에 만들어진 의사적인 소우주”로 정의하면서, 메타버스는 눈앞에 펼쳐지는 가상공간 이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한다. 메타버스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현실에 있는 내가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공간, 현실계의 오브젝트를 이용한 증강공간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

메타버스 개념을 법학 교육현장에 적용한 폴 마하르그(Paul Maharg)에

5) Neal Stephenson, *Snow Crash* (New York: Bantam Books, 1992).

6) 서성은, “메타버스 개발동향과 발전전망 연구,” 「한국 HCI 학술대회」(2008), 1451.

의하면,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학습자들이 다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이러한 가상세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데이터를 근간으로 역할분담을 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건이 흘러가는 방향 자체도 바꾸어 볼 수 있다. 마하르그는 한 시민의 산업재해 소송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인물이 사실은 가상의 인물이며 학생들은 그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상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수업의 목적은 모든 것을 다 “이는” 재판관이 읽어 내리는 판결문을 그저 수동적으로 재생산하는 데 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주어진 플롯의 골격 위에, 부분적 진실만 알고 있는 제한된 인간들의 시선으로 재구성된 이야기들을 한 자리에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⁷⁾ 마하르그의 배경설정은 읍을 둘러싼 배경이 굉장히 간소화 되어있다는 사실을 연상시키면서 읍기의 그 배경의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게 한다. 이 개념은 사실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서사극이나⁸⁾ 우리나라의 마당극에서도 발견되는 이화(de-familiarization)작용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배우들이 표현한 폭력적 또는 압제적 상황의 서사를, 청중들이 중간에 중단시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체 담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읍기를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시도들은 정해진 결론을 주입시키려 하기보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과 과정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독자들의 의식을 깨워주려 한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메타버스 개념을 도입하여 읍기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들은 보다 유연한 시선으로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정답이 아닌 많은 해답들을 들려다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마하르그의 학생들은 이런

7) Paul Maharg, *Transforming Legal Education: Learning and Teaching the Law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153-155.

8) 브레히트의 생애와 작품, 서사극과 이화작용의 역사적 사회적 문맥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Philip Glahn, *Bertolt Brecht* (London: Reaktion Books, 2014).

교육체험을 통해 자신들이 다양한 관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한다.⁹⁾

이러한 메타버스의 개념과 율가가 과연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우선, 메타버스 세계에서 강조하는 것은 설계, 입력, 세팅 등의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 키워드들을 개념적으로 율가에 적용하며 읽어 보면, 율가라는 책 자체가 율이라는 인물을 우리의 아바타처럼 활용하여 우리에게 가상 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과 비슷한 가상적 세계를 통해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구별되는 담론을 제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율가를 메타버스의 고대 근동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해를 돕기 위해 김동인의 액자형 단편소설 『광염소나타』의 서문을 인용한다.

독자는 이제 내가 쓰려는 이야기를, 유럽의 어떤 곳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혹은 사십 오십 년 뒤에 조선을 무대로 생겨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다만, 이 지구상의 어떠한 곳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가능성밖은 있다—이만치 알아두면 그만이다. 그러자라, 내가 여기 쓰려는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백성수(白性洙)를 혹은 알베트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요 짐이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요 또는 호모(胡某)나 기무라모(木村某)로 생각하여도 괜찮다. 다만 사람이라 하는 동물을 주인공삼아 가지고 사람의 세상에서 생겨난 일인 줄만 알면……. 이러한 전제로써, 자 그러면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¹⁰⁾

이렇게 시작하는 광염소나타는 독자에게 등장인물이 겪은 사건들의 사실성 여부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전개될 이야기를 예술의 존재목적과 인간생명의 가치라는 보다 보편적 주제를 고민해 보는 통로로 읽어 줄 것을

9) Maharg, *Transforming Legal Education*, 161. 메타버스 개념과 기술을 교육에 적용한 사례로는 장상현, 계보경,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의 교육적 적용,” 「Review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지)」 5:2 (2007), 79-85 참고할 것.

10) 김동인, “광염소나타,” 「중외일보」 연재 (1930, 1, 1-1, 10); 『한국 근현대 문학선집』 (포르투나, 2020), 1-2.

노골적으로 당부한다.

욥기는 어떠한가. 우리는 욥기에서도 이런 기호들을 읽을 수 있을까? 욥기에는 이“노골적”서문이 없지만, 욥기의 저자는 본문에 심어 놓은 많은 기호들을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집필 태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물론 그 기호들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은 수신자의 의지와 능력에 좌우되지만 말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 악에서 떠난 순전한 자라고 주인공을 소개한다든지, 그의 이름이“적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אִיִּב)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상상조차 못했던, 사탄에 대해 수동적 자세를 유지하는 야훼의 이미지 등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기호들이다. 욥의 소유물들은 어떠한가. 욥기 1:3에 의하면, 욥에게는 양 칠천, 낙타 삼천, 암 나귀 오백 마리에 소가 오백 겨리나 있다. 이 숫자들이 개연성 있게 들리기 위해서는, 욥의 모든 가축들의 숫자가 그 종류대로 백 단위 또는 천 단위에서 깔끔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고, 가축들의 출생, 실종, 죽음 등도 보고된 수치에 변동을 주지 않도록 일정한 숫자가 유지된다는 전제가 작가와 독자 사이에 공유되어야 한다. 필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내레이터의 리포트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니 믿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욥기의 저자가 보다 현실적인 숫자(예를 들면 양이 6,857마리 등)를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렇게 하면 독자들이 의심을 덜하고 쉽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 5, 7, 100, 1,000 등의 이상적인 숫자들로 욥의 재산을 소개하는 동기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욥기 저자의 눈은 사실주의 적 묘사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으니 독자들도 부지런히 그를 따라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세계는 무엇인가? 욥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인간 중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전형으로 우리 앞에 온 것이다. 그가 당하게 될 고난 역시 전 인류 역사에서 개인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경우를 설정한 그런 세계다. 즉, 이제 그는 우리의 아바타 역할을 할 채비를 마치고 우리가 “시작” 버튼을 누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난 전의 복에 겨운 생활과 극심한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이유, 더욱이 그 고난 중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웃들의 언어폭력 등으로 이루어진 이 세팅에서 우리는 평범한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개연성이라는 틀을 통해 욕의 인생 그물망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아무래도 욕만큼 부유하지도 않고, 욕만큼 순전하지도 않으며, 욕만큼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도 적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욕이라는 사람을 인류의 대표 주자로 내세워서 고난과 신앙, 신-인간관계 등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쳐 올 때 어떻게 대처할 지를 고민해 보자는 책이 바로 욕기가 아니겠는가.

욕기의 가상 현실적 세팅은 욕과 욕의 동료들의 관계 및 그들의 대화 장소가 극히 추상적이고 간소화되어 있다는 데서도 발견된다. 욕기는 욕의 동료들과 욕이 어떻게 현재의 동료관계가 되었는지 그 사연을 우리에게 전해 주지 않는다. 욕과 동료들, 그리고 엘리후가 대면하는 3장부터 37장에서 내레이터의 역할은 등장인물들 간의 모노로그들을 연결해 주는 정도로 최소화되어 있다. 본문이 구체적인 내러티브 상황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대화가 아닌 긴 독백 위주로 논쟁들을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참함에 빠진 욕을 발견한 그의 동료들이 실제로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지, 욕 부부를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들은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욕이 내뱉는 불평들에 맞대응하며 끝없이 독설을 만들어 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논쟁들 역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설정해 놓은 어떤 문예적 세팅 아래 조율된 드라마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¹¹⁾

욕의 다른 이웃들은 어떠한가. 욕기 42:11은 “이에” 라는 부사어로 시작

11) 르네 지라르는 이 특정한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동료들의 목적이 공동체의 희생양 메커니즘에 입각해 욕의 입에서 죄를 자백하기 위한 것이라면, 욕기 전체의 맥락에서 욕기 저자의 목적은, 그러한 폭력 앞에서도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는 욕을 통해, 이 공동체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직·간접적으로 폭로하는 위대한 책이라고 역설한다. René Girard, *Job the Victim of His People*, trans., Yvonne Freccero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1987).

하면서 욥의 모든 형제자매, 이웃들이 그의 집으로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주며 위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는 10절에서 야훼가 욥의 모든 곤경을 돌이키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보상해 준 사실을 가리킨다. 즉,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후에야, 그에게 다시 앓을 공간이 생겨 이웃들이 다가와도 될 만한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야, 그의 사회 관계망이 다시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모든 것이 회복된 후에야 찾아와서 위로를 하다니!¹²⁾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여기는 독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데도, 욥기는 이들을 향해 한 마디 비판의 말도 던지지 않는다. 이것은, 욥을 향한 욥기 저자의 세팅이 그만큼 치밀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저자는 고난 중에 있는 욥이라는 인물을 철저한 고독과 소외, 비방이 난무하는 고통의 굴레로 옅어매어, 야훼가 돌려 준 복의 율타리(1:10)가 단순히 제거된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율타리로 대체되었음을 보여준다. 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방법을 사용해서 한 순간에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한, 욥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일꾼들을 다시 고용하고, 기르던 가축들을 다시 소유하게 되기

12) 발렌타인은 욥의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난이 야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발언에 주목하는 반면 (Balentine,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Understanding the Biblical Archetype of Patience* (Columbia, SC: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15), 118-119), 뉴섬은 그들의 제스처가 아내가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화해의 상징이라는 것에 주목한다(Newsom, *The Book of Job*, 61-62). 필자는 발렌타인의 분석이 본문의 문맥에 보다 더 어울린다고 보면서, 더 나아가 공동체의 거리두기를 지라르의 회생양 메커니즘이나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제시옹 패러다임으로 읽는다(Julia Kristeva,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L. Roudie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즉, 동료들이 공동체의 대표 격으로 욥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42:11의 친척과 이웃들은 그런 세계관에 압도당하는 군중에 해당하여 욥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관점이다. 고난 전의 욥은 부름과 질투의 대상이자 그들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려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인식이 그들을 고난 중인 욥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보이지 않는 빗장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 빗장은, 최종 권위자인 전능자가 풀지 않는 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빗장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지면의 한계 상 다른 논문 “나의 울곧음이 당신의 폭력을 부추기는 순간들: 욥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자명하지만, 욕기는 마치 10분 후쯤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건너뛰고 만다. 이웃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여 열심히 욕을 도왔다는 말도 없다. 회복의 과정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니 독자들도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다.

광염소나타가 인생을 위한 예술(Art for Life)과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에 대한 논쟁을 위해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면, 욕기는 의인이 받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와 악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욕의 이야기를 불러 온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메타버스 개념으로 텍스트를 읽게 되면, 주인공에게 자신을 투사하며 모든 것들을 사실성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우리와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며 욕기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첫째로,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목적론적 신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 주제 면에서 욕기는 전통적으로 독자들을 목적론적 신학(teleological theology)으로 이끌어왔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니 그간의 어려움은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히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논리다. 이 신학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었을 뿐 아니라 천국 소망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이 우리들의 신앙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또한 미칠 수 있기에 우리의 주목을 요구한다. 일단의 해석자들이 욕기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신학이 설 수 있는 서사를 만들어 내면서 욕을 이 신학의 대표적 사례로 내세워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왔기 때문이다.¹³⁾

고난에 대해, 위에 계신 분이 어련히 알아서 내려주신 훈련이겠거니 생각

13) 이러한 해석은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 주자들인 마틴 루터나 요한 칼뱅의 신학 등, 후대의 해석자들에게서만 비롯된 것은 아닌 듯하다. 구약의 예언자 전통(예를 들어 에스겔서 14:12-23)에서는 욕이“ 의인”의 예로 거론되는 데 반해, 야고보서 (5:11)에서는 안내의 아이콘으로 강조되고 있어서 목적론적 신학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고 토 달지 말고 달게 받아들이자는, 이러한 “질문 안 하는 분위기”는 체념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해 왔다. 괜찮지 않고 참기 힘든 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이해되지 않아서 넘어가기 싫은 데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미덕이 된 사회는, 우리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고심하기에는 너무 바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게 했다. 질문하려면 생각해야 하듯이 질문하지 않으려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꾸준히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진지하게 되고, 진지하게 고민할 때, 비로소 비판적 반성과 생산적 제안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되며, 그때 성숙한 개인,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느 선에서 생각을 접어야 할 때가 많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서, 우리의 사고 능력은 마치 불필요한 장기가 퇴화하는 것처럼 녹슬어 버린 것은 아닌지. 웅어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질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히 신을 향해 도전하는 것은 무조건 불경하다고 생각하며 눌러 버린 채,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주문처럼 외우며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생기 없는 창백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발견한다. 한 마디로 이 글의 제목에 표현된 대로, 무엇을 봐도 “테면테면” 대하는 성도들을 키우는 이 신학적 풍토 역시 입으로는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듯하지만, 실은 체념의식을 길러내는 테면테면 신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고 기피로 인해 비어 있는 마음으로 파고드는 신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울타리) 신학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울타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진대, 주객이 전도되어 종종 그 울타리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는 양태가 속출한다. 사탄이 바로 이 점을 포착하여 하나님에게 도전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울타리신학이란, 우리가 울타리라는 안전망 속에 있을 때, 또는 있다고 느낄 때에 한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신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울타리를 위해서 믿고 의지할 신의 이미지를 성경의 하나님과 접목하여 조합시킨 보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는 목적론적 신학이 오히려 신학과 접목하게 되면,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해 따지지 말고 잠잠히 순종하라는 명제를 뒷받침하게 된다. 아픔이나 불협화음, 희생 등은 모두 훈련의 과정,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으니 은혜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잊어버리라고 주문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독교 성도들조차도 목적을 위해 과정의 도덕성을 희생하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단힌 신학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이게 되는 이 집은, 과연 반석위에 세워진 것일까? 모래 위에 얹혀 있는 것일까?

둘째, 이러한 가상현실 개념을 이용한 거리두기 독서는 신정론(theodicy)의 부담으로부터 우리들을 다소 자유롭게 해 준다. 욥기 1-2장은 천상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사실주의적 재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성경 속의 다른 책에서 배운 교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는 열심을 낸다. 욥기가 정경 내에서 독특한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내 전제와 맞지 않는 부분은 숨기고, 그래도 다시 불협화음이 불거져 나오면 본문을 뒤틀거나 수정하는 등, 쓸 데 없고 일견 해롭기까지 한 작업들을 해 온 우리들. 그것이 경건한 읽기라고 다짐해 왔던 우리들¹⁴⁾. 이 독서 방법의 끈을 조금 느슨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욥기가 보여주는 구조를 그 자체로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욥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미들턴(Richard Middleton) 역시 욥기의 서문이 지혜문학으로서 가상의 세팅(what-if scenario) 가운데 쓰였다고 상상해 보자면서, 고소자인 사탄이 이야기의 플롯을 움직이는 문예적 장치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렇게 볼 때, 서문에 그렇게도 공격적으로 등장했던 사탄이 책의 말미에서는 사라져 버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¹⁴⁾

14) J. Richard Middleton, *Abraham's Silence: The Binding of Isaac, the Suffering of Job, and How to Talk Back to God* (Ada: Baker Academic, 2021), 101. 욥기의 “사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된 상태이다. 학자들의 대체적인

셋째, 욥기의 장르를 이렇게 약간 폭넓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독자로서의 순전함(wholeness or integrity)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욥기를, 욥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 동시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결론에 동의하기 위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을 무시하며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 책이 제시하는 논리들을 끝까지 따라가기가 버겁다고 느끼게 된다. 등장인물들이 주장하는 논리들이 긴장관계에 놓이게 될 때, 저자가 그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은 채 다음 상황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완결된 서사를 구성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의견은 욥기의 이 “사탄”을 조직신학적인 틀 안에서 마귀나 공중 권세 잡은 자 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달리, 욥기에 등장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석하는 천상회의에 자연스럽게 참석하고,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그가 거룩한 장소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로 인해 천국이 오염되었다든지, 그가 죄수 취급을 당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사탄 이미지에 길들여진 독자들은 이런 장면들이 당혹스럽기만 하다. 발렌타인은 이 장면을 고대 근동의 문맥에서 새해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신들의 회의와 비슷한 정황으로 이해한다. Balentine, “*Look at Me and Be Appalled*,” 14.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선달 그믐날과 같은 과도기적 시기(liminal period)에 국가와 개인들의 일 년간의 행적을 점검하여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 그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 분위기를 연상하면 되겠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사탄을 사탄-대적자 또는 사탄-고소자 등으로 이해해 왔다. 예를 들어, David J. A. Clines, *Job 1-20*, WBC 17 (Dallas: Word, 1989), 1920; Samuel Rolles Driver and George Buchanan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ICC (New York: Scribner's Sons, 1921), 11;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89; Marvin H. Pope, *Job: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AB 15 (Garden City, NY: Doubleday, 1965; 3rd ed., 1973), 911; Peggy L. Day, *An Adversary in Heaven: šātān in the Hebrew Bible*, HSM 43 (Atlanta: Scholars Press, 1988), 2543; Victor P. Hamilton, “Satan,” *ABD* 5 (1992), 985-989. 최근에 라이언 스토크스(Ryan E. Stokes)는 욥기의 사탄을 야훼의 명령을 집행하는 자, 특히 야훼의 심판 명령에 따라 인간에게 물리적 형벌을 가하는 집행자로 읽을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야훼의 명에 따라 죄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탄-집행자가 그의 상관인 야훼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악인이 아닌 의인에게 고통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 1-2장, 욥기의 도입부이다. Ryan E. Stokes, “Satan, Yhwh's Executioner,” *JBL* 133:2 (2014), 251-270. 한편, 이경재는 신화학적 차원에서 보면 사탄이 트릭스터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경재, 『욕과 케 보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3.

신학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독자들은 이런 논리적 빈자리(gap)들을 애써 매우려 했지만, 그 노력만큼, 미안하게도, 그렇게 탄생한 신학들은 욕기의 신학이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욕기와는 다른 색깔의 신학이 된다. 그들이 놓친 것은, 욕기가 독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허락하는 열린 텍스트이지만, 한 가지 정답을 밀어붙이는 해석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이다.

3. “네 손에 맡기노라” 상황적 딜레마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주·종 관계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인가?

욕기에서 심판 또는 재고(再考)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욕이나 동료들과 같은 인간만이 아니다. 욕기의 하나님은 심판자 또는 결정권자인 동시에 그의 공평성에 대해 도전하는 자들에게 대응하는 변론자로도 등장한다. 사탄의 도전적 질문을 받은 자와 그 논제에 대한 결정권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 것이 1-2장이라면, 38-42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는 변론자와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욕기가 이러한 전능자 야훼의 인격 또는 통치방식에 대한 도전과 그 대응 장면들은 충실히 재현하는 반면, 그 대응들이 과연 도전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해결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욕기의 하나님은 상당히 권위적인 언어로 묘사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의 대응방식은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¹⁵⁾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의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할 텐데, 우선 야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추론해 보자.

15) 야훼의 소극성은 욕기에서 세 번에 걸쳐 나타나는데, 첫째는 도입부의 사탄과의 대화에서, 둘째는, 3장에서 37장에 이르는 인간들의 논쟁 및 탄원의 긴 서사 시간 동안의 부재에서, 마지막으로, 욕의 도전적 질문에 대한 의도적 우회를 통해 파생된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인 도입부가 주요 고찰대상이다.

이 입장에 서면, 우주의 왕인 야훼가 독재적 통치를 하는 대신 세워 놓은 법칙(이 경우에는 사탄의 도전을 묵살하지 않고 경청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탄의 도전을 수용했다는 논지를 전개할 수 있다. 신을 경외함에 있어서 순전한 동기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가 욥이라는 인물이 맞는가? 사탄이 던진 이 질문은 야훼가 사탄에게 자랑한 욥에 대해 그 휘하에 있는 사탄이 도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1:9-10), 이 문제는 야훼의 권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환되고 만다. 즉, 사탄의 도전을 묵살하든 받아들이든, 그 어느 쪽도 야훼에게 득(得)이 되지 않기에, 이 순간 첫 번째 딜레마가 발생한다.

딜레마 속으로 이미 한 발이 미끄러진 야훼에게 사탄은 쉴 틈을 주지 않고 한 일가의 몰락을 불러 올 수 있는 무서운 제안을 한다. 만약 지금까지(과거로부터 현재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당신이 둘러 준 보호망을 욥에게서 걷어낸다면, 욥은 당신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 문제는 가정(假定)에 입각한 상황을 전제로 자신의 논리를 이끌어가는 이 사탄의 도전인데, 그 성격상 역시 같은 논리인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의 언어로는 그 도전을 물리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래(未來)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기에, 눈으로 보여주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증명해 줄 수 없다. 욥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함을 지킬 것이라고 말한들, 그것은 그저 어떤 확신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해 주장하는 수준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란, 믿는 자의 주관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보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 부재(不在)에 입각한 논리에 휘말리게 된 것이 야훼가 처한 두 번째 딜레마다.

이 대화가 천상회의라는 공식 석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천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신으로서, 그의 통치가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하다는 평판은 야훼에게 매우 중요한 명예의 문제가

다.¹⁶⁾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무도 내놓고 대들지는 못하겠지만, 야훼는 이 도전자 사탄을 대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공평 정대함, 순전한 인격을 유지하며 어떤 신원이든 무시하지 않는다는 명성을 유지하기 바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만족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대화를 지켜보는 수많은 청중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욕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상관없이, 욕기의 상황적 아이러니, 신(神)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적 딜레마가 연출된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욕에 대한 당신의 그 신뢰가 그 종의 순전한 동기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 확신에 도전하는 목소리를 독재적인 권력으로 물리치지 않기 위해,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야훼의 결단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청중들의 교육을 위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올곧은 종에게 올곧지 않은 관계의 시간을 허락한다. 야훼와 욕 사이가 무언가가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찼찼해졌다. 하나님이 그분의 종에게 말하기 껄끄러운 비밀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야훼의 소극성을 들여다보자. 필자는 우리의 주인공 욕에게 가장 적합한 별명은 사실 호모 사케르라고 생각한다.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는 용어는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호모 사케르와 전제군주』라는 그의 저서에서 생존의 삶만이 허락된 채,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으나 여전히 자신을 배제시킨 권력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 군상을 지칭한 단어이다.¹⁷⁾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범죄자 아닌 범죄자들이나, 전쟁이나 자연 재해 또는 정치적 혼란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가 난민 신분으로 전락하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16)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에서 모세는 야훼의 명성이 훼손될 것이 두렵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한다. 에스겔서에서는 야훼 스스로, 그가 포로들을 돌이키려는 근본 모티브가 바로 당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17) Giorgio Agamben, *The Omnibus Homo Sacer*, trans., Lorenzo Chiesa and Matteo Mandarini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 7-13, 61-63, 113-118, 167-192.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그룹에 속한다.¹⁸⁾ “사케르 (sacer, 즉 sacred)”라는 용어가 주는 현대적 뉘앙스 탓에 단어의 어원적 문맥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종교적으로 신성하게 구별된 희생제물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감벤은 오히려 고대 로마 사회에서 통하던 저주의 역동적 전염성에 입각해 생각할 것을 권장한다. 즉, 이들은 신의 법과 사회의 법 양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살해 등 각종 폭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존재들이다.¹⁹⁾ 그는 또한 평범한 시민이, 보이지 않는 주권자의 결정에 따라, 그의 보호로부터 제외되는 예외상황(an inclusive exclusion)에 처하게 되는 추방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죄와 벌의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다.²⁰⁾

야훼로부터 “나의 종”이라고 불리는 욥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해 그분의 자애롭고 공의로운 보호에서 추방되어, 젖값을 치르느라 신의 극한 형벌을 받는 사람처럼 취급된다. 겨우 숨 쉬는 것만 허락된 욥은, 그러나 여전히 그 법에 살고 그 법에 죽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되기에 호모 사케르의 전형이 될 만하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당한 욥도, 이 고난을 제안했던 사탄도, 모든 것을 아는 듯한 우리 독자들도, 이런 결정을 내린 전능자의 깊은 속내는 알 길이 없다. 독자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내레이터도 야훼도 주인공인 욥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욥의 인격이다. 더 나아가 바로 그의 올곧은 인격이 야훼와 사탄의 대화를 무섭고도 황당한 결론으로 이끈 모티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다 (1:7-2:6).

18) 아감벤의 예외상황에 처한 호모 사케르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예가 유디트 버틀러 (Judith Butler)가 지적한 관타나모 수용소의 대기자들이다. 버틀러는 미국 부시 행정부에 의해 추방되고 감금된 테러 용의자들이 미국령 밖의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의 결정권 아래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한 없이 연기되는 재판을 기다리는 수감자들의 운명이 일반법이 아니라 집행자의 임의적인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절박하고도 피폐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Judith Butler, “Precarious Life; Indefinite Detention.” <https://www.guantanamobaymuseum.org/?url=butlertext> accessed September, 1, 2021

19) Agamben, *The Omnibus*, 69-73.

20) Ibid., 50, 61-63, 113-118, 167-192.

아감벤에 의하면, 호모 사케르를 탄생시키는 주권자는 자신의 권위를 점점 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사회에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엄성과 통치의 정당성을 역(逆)으로 증명한다.²¹⁾ 욕기 저자는 욕기의 하나님은 대우주의 절대 권력자로서, 시시콜콜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왕좌에서 보고를 받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듯하다.

반면, 사탄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인간사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야훼와 대화하기 위해 잠시 서 있을 때뿐이다. 욕기는 천상회의장에 사탄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 장면을 묘사할 뿐 아니라(1:6; 1:12; 2:1), 그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말하고(1:7), 실제로 야훼의 허락을 받아 욕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들을 집행한 장본인이라고 말한다(1:12; 2:7). 또한, 야훼가 그의 권력을 사탄에게 위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능자는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는 야훼라는 것도 은연중 드러낸다. 우리로서는 전능자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을 반박하며 거절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 욕이 고난당하기 직전이라도 명령을 바꾸는 것 등으로 개입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²²⁾

여기서 쫓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대두된다. 야훼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탄의 도전은 받아들여진 반면, 그의 추종자인 하나님의 종 욕에게는 문제의 이 결정에 대해 사전 통보도 사후 설명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21) Ibid., 17, 36.

22) 헤르만 멜빌 (Herman Melville)은 그의 단편소설 바틀비(Bartleby)에서 필경사 바틀비의 입을 통해 “I would prefer not to -- (저는 -- 하지 않는 쪽을 선호합니다)”라는 천재적인 대응을 만들어 내는데, 상사의 요청에 대해 저항 아닌 저항을 하는 바틀비의 이러한 대응은, 모(牟) 아니면 도(徒)의 해결방식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Herman Melville,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Street* (Lexington, KY: Seven Treasures Publication, 2009), 37-38. 이러한 전략은 본문에서 필자가 지적하듯, 야훼가 1:12 직전에도 사용할 수 있었고, 호모 사케르로 전락한 욕도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출구전략이다. 아감벤 역시 이런 저항을, 잠재적 호모 사케르들이 아직 그들의 신분이 잠재태(潛在態)로 있는 동안 현실태, 즉, 권력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Agamben, *The Omnibus*, 41-43).

앞에서 살펴 본 상황적 딜레마(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탄의 도전과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던 상황)가설의 논리적 타당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필자가 보다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들을 유발시키는 욕기 저자의 의도이다. 야훼가 잠시 생각한다든지, 다른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는 스스로 엄청난 지혜로 사탄을 논박한다든지 하는 등의 쉬는 시간을 가지는 대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키는 서사방식을 택한 욕기 저자의 전략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처리된 결과에 대해, 그것이 사실은 사탄의 제안을 그대로 따른 야훼의 충동적 결단(2:3)이었음을 야훼 스스로 말하게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더구나, 이러한 자기반성적(?) 평가 이후에도, 여전히 더 심한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 야훼를 아무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욕기 저자의 의도가 무척 궁금하다. 도대체 욕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것인가?

필자는 주변에서 도입부가 보여주는 이 충격적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려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다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깊은 섭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욕기 저자의 의도가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선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훼를 이 모든 고난의 결정자요 책임자라고 말하는 것이 곱고러워서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희석시키려 해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욕에게 주어진 고난은 야훼가 스스로 도입부에서 밝히고 있듯이 “까닭 없이”²³⁾ 주어진 것이다. 욕은 야훼

23) 욕기 2:3에서 “화를 불러일으키다”(חָרַם)라는 동사는 구약성경에 18번 나타나는데 욕기의 본문에 사용된 것과 같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부추겨서 괜히 화가 나게 만들었다는 문맥으로 사용된 경우는 이곳이 유일하다. 더구나 욕기는 “아무 이유 없이”라는 부사어 (לֵאמֹר)를 사탄(1:8), 야훼(2:3), 그리고 욕(9:17)의 발화에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 사탄은 욕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문맥에서, 야훼는 사탄이 당신을 충동하여 **까닭 없이** 욕에게 고난을 허락했다는 문맥에서, 그리고 욕은 야훼가 **까닭 없이** 자신에게 고난을 내렸음을 탄식하는 문맥에서 이 부사어를 사용한다. 이 세 번의 사용으로 인해 (나머지 한번은 22:6의 엘리바스의 발화에 나오지만 이 논의와는 상관없기에 다루지 않는다), 욕기 저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서막에 나타난 야훼는, 최고 권력자였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논리에 휘말려 불행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었던 세익스피어의 리어왕의 묘사에서 어느

를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며 공정하게 그의 문제를 다루어 줄 심판자를 향해, 무턱대고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고(10:2) 호소한다. 이렇게 탄식하는 율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소설 『심판』에 나오는 또 다른 호모 사케르이자 율의 분신인 요제프 K를 연상시킨다.²⁴⁾ 두 인물 모두 고난의 원인도, 고난의 기한도, 그 고난을 호소할 곳도, 그리고 의논할 친구도 없이, 현재 진행형의 폭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인물들이다. 하나님이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는 동안, 율을 향한 이웃들의 공격은 야훼의 소극성을 전략적으로 구조화시킨 율기의 서사 구조 속에서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에 걸쳐 진행된다. 이 가나긴 논쟁 과정에서 고독과 편견과도 씨름해야 했던 율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19:6)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형용할 수 없는 연속적인 고난을 허락한 분이 끊임없이 부르짖는 율의 질문들을 묵살하는 사이에, 이제 율에게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27:2)이 된 것이다. 이경재는 윌리엄 블레이크 (William Blake)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자의 목덜미를 부스러뜨리는 하나님, 선한 자를 희생시키는 징벌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한다.²⁵⁾

호모 사케르는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능자(Sovereignty)의 권력에 의해 탄생한다. 율기가 도입부에서 보여주는 것 역시 전능자 하나님의 논리적인 듯 보이는 비논리적인 결정이다. 까닭 없이 도전자 사탄에게 동의한 야훼에 의해 율이라 이름하는 호모 사케르가 탄생하는 비밀스러운 장면을 율기 저자가 과감하게 보여주는 것은, 책 전체를 읽을 때 이 비극적 탄생 장면을 결코 잊지 말라는 저자의 강한 신호이다.

정도 재현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24) Franz Kafka, *Der Process* (Berlin: Verlag Die Schmiede, 1925).

25) 이경재, 『율과 케 보이』, 97.

4. 쉬어 읽기 시간에 만나는 새로운 관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위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도입부에서 우리를 충격에 빠트렸던 야훼의 결정이 상황적 딜레마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기보다, 전능자가 그의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 중의 하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욥은 그때 야훼의 마음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사랑해 마지않던 욥은 그 순간 야훼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한 순간의 고민도 없는 듯 자연스럽게 사탄과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었을까? 구약 성경은 종종 죄인에게 심판을 내릴 때조차 공허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벌을 감해 주거나 연기해 주는 하나님을 보여준다(창 19:29; 렘 31:20 참조). 이런 예화들을 기억하는 독자들은 욥기 도입부의 야훼를 소화하기가 무척 버거울 것이다. 첫 번의 재난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욥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다시 도전하는 사탄의 요청에 여전히 오케일로 응답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사탄이 도전과 제안의 발언을 마친 후인 1장 11절과 야훼가 욥에게 고난을 내리기로 결정하기 전인 12절 사이에서 이야기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쉬어 읽기”를 해 보자. “쉬어 읽기”란 본문의 어떤 특정 지점에서 잠시 쉬었다 읽는 것으로, 개인적인 독서뿐 아니라 공적인 낭독에도, 성경공부나 설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읽기이다.²⁶⁾ 성경을 읽으며 쉬어 읽기를 해 보자는 것은 난해한 본문을 임의적으로 잘라서 독자의 의지대로 고쳐 읽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문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구조들이 허락하는 범위(scope) 내에서 독자들이 그 능동적

26) 욥기 1:11-12 사이의 쉬어 읽기는 텍스트의 기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자의 능동적 독서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본문 자체에서 쉬어 읽기를 권하는 (Narrative Pause) 기호를 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욥기의 경우에는 욥기 42:6과 42:7 사이, 욥의 마지막 발화와 내레이터의 내레이션 사이의 갭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러티브 독서에서 잠시 끊어 읽기에 대한 다양성과 기능성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Miguel Oliveira, “The Role of Pause Occurrence and Pause Duration in the Signaling of Narrative Structure,” *Part of the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Book Series* (LNCS, volume 2389).

독서의 폭을 최대화시켜서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해석과 적용을 도모해 보자는 것이다. 잠시 쉬면서, 고민을 하고 또 해 봐도, 욕기 전체를 다 읽고 나서도, 실망과 질문과 도전적인 생각은 돌고 돌아 다시 욕기 1장 12절 앞으로 필자를 이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에게 욕은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은, 다른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내가 고난당 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라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묻는 질문보다 문제의 핵심에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고난의 원인자와 희생자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나의 종”이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욕을 놀리고 욕박지르며 무지한 이치로 우주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자로 욕을 부를 때를 제외하고는, 야훼는 욕을 언제나 당신의 종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있다. 욕기 안에서는 이 주-종 관계에서 파생되는 생각 외에 야훼의 숨은 동기를 찾을 길은 달리 없어 보인다. 만약 이것이 답이라면, “까닭 없이”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 욕에게 고난을 허락했다고 한 야훼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진다.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야훼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은 수사학적으로 붙여진 명예로운 호칭이기 이전에,²⁷⁾ 종이 누리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더욱 주요한 의미망으로 가지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신-인 관계를 표현하는 메타포들은 다양하다. 친구(아브라함과 하나님), 부모-자녀(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부부 관계(이사야서에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 등 다양한 관계 메타포들 가운데 욕기가 ‘주인-

27)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이 욕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친구라는 호칭으로도 불렸다. 욕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종 욕”이라고 욕을 부를 때에는, 인간들 중에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주는 의미가 담겨있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욕기에서는 주인의 소유권이 강조되는 “종”이라는 메타포 외에 다른 메타포가 신-인 관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예'라는 메타포를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하지는 것이다. 주-종 관계에서는, 주인이 종의 생사회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 통보나 의논 등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고 만다.²⁸⁾

이러한 주-종의 관계로 신-인 관계를 생각하는 세계관은 욥기에서 욥을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공유하고 있는 프레임이다.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적인 제안을 들었을 때, 욥에게 “의논하거나 알려주거나” 하지 않고 바로 당신의 소유물인 욥을 향해 고난의 주사위를 던지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당신의 종에 대한 당신의 권력을 행사한 야훼는 38장 이후에 등장해서도, 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만저만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갈 만하다. 욥에게 자초지종 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야훼의 머릿속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의인에게 내려진 고난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 똑 떨어지는 설명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등장인물인 욥과 그를 지켜보는 우리 독자들뿐인지도 모른다. 주인인 야훼의 행사에, 그것이 아무리 당사자의 삶을 흔들어 놓는 중대한 일일지라도, 종에게는 알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과 욥의 주종 관계를 생각하며 야훼의 수사학적 질문(40:8),

28) 현대독자들에게 보다 심각한 이슈들은 야훼의 주인 이미지가 기독교 사상을 문화의 기저에 두고 있는 영미권에서 인종차별, 노예제도 등을 지원하는 이데올로기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많은 지배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은근히 끌어와서, 자기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투사 시켜 왔기 때문이다. 욥기에 나타난 노예 이데올로기나 이것에 대한 미국의 저항 수용역사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Hattie Francis, “American Slave Narratives and the Book of Job: Frederick Douglass’s and Nat Turner’s Quests for Scriptural Authority and Authenticity,” (Master Thesis,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2014). 욥기에 나타난 폭력과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Kirsten Dawson, “‘Did Not He Who Made Me in the Belly Make Him, and the Same One Fashion Us in the Womb?’ (Job 31:15): Violence, Slavery, and the Book of Job,” *Biblical Interpretation* 21 (2013), 435-468을 보라. 이경재 역시 순종의 교리가 “신의 대리인이나 신을 대체하는 세속적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쉽게 전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정신적 에토스”라고 지칭한다. 이경재, 『욥과 케 보이』, 19.

“(감히 종인) 내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는 것이냐?”를 읽으면, 그분이 왜 그리도 욕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피조물인 욕(=하나님의 종)이 창조주인 야훼를 향해 넘지 말아야 할 선(線)을 넘은 것이다.

사탄의 도전 또한 이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해가 쉬워진다. 그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주인-노예 관계에 있는 한, 자발적으로 다른 동기 없이 신을 경외할 인간은 없다는 전제 하에 욕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도전한 것이 아닐까. 동료들 역시 이런 주인-노예 패러다임으로 신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에게 도전하려는 욕을 말리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최대한 기억을 살려내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형벌 받는 종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다. 아내 역시 주종 관계에 입각한 논리로 욕을 설득하고 있는데, 주인이 종을 보호하는 원칙(suzerain-vessel relationship)을 먼저 깨어버린 이상, 종이 나서서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그만 미련을 버리고 생을 마감하라는 논리이다.

이 논리 앞에서, 사탄이 전제로 하고 있었을 법한 질문을 우리 입장에서 다시 던져 보자. 노예는 주인을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할 수 없는가? 수전 엘리엇트(Susan M. Elliott)는 올랜도 패터슨(Orlando Patterson)의 사회적 죽음이론을 원용해서 그럴 수 없다고 답한다. 노예(종)는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살아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노예에게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 그녀는 그 이유를 종의 존재론적 정의에 입각해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종이 주인을 순수한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사랑할 수 있으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그 자유란 그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노예는 바로 그 자유가 없는 존재라는 것. 둘째, 종의 사회적 조건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노예끼리의 사랑도 허락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노예에게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여력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인의 소유물인 노예는 주인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때조차 그의 시선을 오롯이 주인에게 집중해 있어야 한다.²⁹⁾ 엘리어트의 논리에 약간의 비약과 극단적 성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욱기의 중요 이슈 중 하나인 순전한 동기에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주종관계에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인가를 가늠해 보는 데에는 도움이 될 만한 논지이다.

이제 남은 사람은 욱이다. 욱은 고난이 닥치기 전의 나날에, 자신과 야훼를 어떤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필자는, 욱이 다른 등장인물들과 달리 그 자신을 종이라고 이해하면서도 그 관계가 대화불가능, 접근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제지간이나 부자지간에서 보듯 동행 가능한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전통적인 종의 개념이 반영된 부분을 보자. “주신 이도 야훼이고 거두신 이도 야훼”(1:22)라든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2:10)라는 욱의 찬양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표현하는 고백인 동시에, 욱이 자신을 질문 할 권한이 없는 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발화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의 탄원시들을 보면, 욱은 자신을 엘리어트가 기술하고 있는 식의 노예, 즉, 주인에게 다가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따져 묻고 대답을 기대하는 자유가 없는 종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고난이 닥친 후에 욱이 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극한 폭력적 상황에서, 신에 대한 자신의 순전함도 지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순전함도 지키려고 몸부림 친 것이 아닌가. 이 지난한 몸부림을 가능하게 한 동력을 욱기 전체의 정황으로 가늠해 보면, 그 동력은 종으로서의 충성심보다는, 신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는 동행자(Companion)라는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즉, 그동안 쌓아온 신의가 무너지

29) Susan M. Elliott, “John 15:15—Not the Slave But Friends: Slavery and Friendship Imagery and the Clarification of the Disciples’ Relationship to Jesus in the Johannine Farewell Discourse,” *Proceedings: EGL & NWBS* 13 (1993), 39. 패터슨의 이론에 대해서는 Orlando Patterson, *Slavery and Social Death* (Cambridge, M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를 참조할 것.

정도의 폭력을 당했을 때,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전에, 이유를 묻고 사과를 받고,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고, 다시 용서도 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것은, 상호 존중하며 동행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이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는 친구 간, 부모 자녀 간, 부부 간에 모두 가능하지만, 주인공과 노예 관계에서는, 그 개념이 “소유물”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등장인물 모두가 주종 관계의 패러다임에서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주인공 욕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그분을 저주할 수도 없고 노예처럼 억울한 대로 넘어갈 수도 없는, 극한 모순과 갈등 속에 빠진 인물, 시대와 화해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게오르크 루카치 식으로 표현하면, 욕은 내용과 형식 사이에 모순을 담고 있는 문제적 인물인 것이다.³⁰⁾

그의 탄원자들은 욕이 신과의 관계 정체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유지하고 있었던 야훼에 대한 믿음을 하나씩 끊어낼 때 느끼는 아픔을 표현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3:6에서 욕은 야훼가 큰 권능으로 자신과 더불어 다룰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확신한다. 욕이 아직 이런 인식 하에 있을 때에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그가 야훼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끝날 기약 없는 고난의 시간은 많은 것을 정리시켜 준다. 야훼와 자신의 관계를 대화 가능한 동행 관계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착각이었고 자신의 일방적 바람일 뿐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주어진 물리적 고난 못지않게 욕의 뼈를 녹아내리게 하는 일이기에 최대한 피하고 싶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양쪽에 끼인 채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기불능의 고난을 던져 준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신 앞에서, 사실은, 그분과 자신의 관계가 질문이 허락되지 않는 주-종 관계였다는 현실적 자각이, 실망과 체념으로 분노와 저항으로 뭉치고 풀어지기를 반복한다. 거기서 터져 나오는 감정적

30) Georg Lukács, *The Theory of the Novel: A Historico-Philosophical Essay on the Forms of Great Epic Literature*, trans. Anna Bostock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71).

토로가 바로 욥의 탄원시들이다.³¹⁾

이제, 욥기 1장 11절에서 필자와 함께 쉬어 읽기를 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신과 인간관계에 대해 획기적인 전환을 선포한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한다.³²⁾ 요한복음 15장, 특히 12-15절의 문맥적 배경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고별담화이다. 즉, 자신의 부채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관계를 발표하는 자리인 것이다. 데이비드 콘스탄(David Konstan)은 우정을 산-인 관계의 메타포로 설정한 예수님의 이 선포는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감탄한다.³³⁾

우선 호칭을 살펴보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들을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친구(요 15:15)로 부르겠다고 한다. 엘리어트는 친구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등한 관계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처럼 사제 간에도 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³⁴⁾ 이런 점에서 필자는 이 관계를 동행자 관계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욥의 하나님과 제자들의 예수님은 계획을 공유하거나 의논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종은 주인이 하는 일(big picture)을 모르고 몰라야 할 때가 많다. 욥은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데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하나님의 계획도 그 동기도, 사후 설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전혀 없다. 반면,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즉 신에게 들은 천상의 비밀까지 친구관계로

31) 물론, 여기에는 눈앞에서 욥의 상처에 초를 부어대는 동료들이 있다. 욥기 저자는 동료들의 연속적인 거친 공격을 축매제로 이용하여 욥의 형언하기 힘든 분노와 실망이 논리적인 담화의 형식을 갖추어 신에게도 후대의 독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32) 기독교론적 관점에서 욥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의 방점은 신약으로 구약을 덮어씌우자는 것보다는 함께 읽자는 데 있다. 요한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하는 산-인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거울삼아 욥기를 읽었을 때, 우리는 텍스트 심층에 깔려 있는 욥기 저자 시대의 신학적 패러다임을 보다 선명히 알게 될 뿐 아니라 욥기 저자가 그 패러다임에 대해 자신의 동시대인들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33) David Konstan, "Problems in the History of Christian Friendship,"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4:1 (1996), 96.

34) Elliott, "John 15:15 Not the Slave But Friendship, 35.

전환되는 제자들에게 이미 다 알려주었다고 한다(요 15:15).³⁵⁾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지극히 높은 우주의 하나님과 공유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연대감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미, 부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재 시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여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초석을 마련한다. 당신의 종인 욕기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 몰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욕기의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며 그 의미를 친구인 인간제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자발적인 순전함을 유지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은 그리하여 신의 미션에 기쁘게 참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승화되고, 스승의 부재에도 이 자발적 선택 덕분에 공동체 일원들은 고난을 이겨낼 내적 동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대감에 기초한 동반자 관계이다. 그러나 욕기의 주종 관계 패러다임에서는 종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가 제거되는 순간, 또는 주인이 가까운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순간, 노예로서 충성을 다하던 종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욕기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욕기의 저자는 그의 시대에 신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가장 선진적인 신학을 문제제기 형식으로 전개했는지 모른다. 이제 그 대안을 찾는 것은 우리 독자의 몫이다.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욕기와 그것들을 짝을 이루어 함께 읽을 때 욕기의 진가는 비로소 더욱 드러나지 않겠는가. 요한복음 15장의 담화와 함께 읽어보자는 필자의 제안은 하나의 초대장일 뿐이다. 도입부를 당당하게 적어 놓고 시작하는 욕기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문제뿐 아니라 신인 관계에 대해, 그것을 구성하는 신학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보기를 권장한다. 욕기는 이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못하면서), 은근히 성자 하나님의 출현을 그리워하고 있는 듯하다

35) 역설적이게도, 욕기에서 이러한 사전 논의와 접근가능한 관계는 오히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도 욕기는 정경 중에서 매우 특이한 책이다.

(projecting the era of Christ).³⁶⁾ 특히, 우리가 간단히 살펴 본,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는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다. 물론, 읍기의 독자들이 문밖 에 서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읍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다가오는지 선입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메타버스 안경을 쓰고 몸을 좀 가볍게 만드는 것은 위밍업으로 좋은 시도이다.

5. 나가며: 데면데면, 비대면, 대면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에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책 읍기. 논리적 빈자리들을 여기저기 아무렇지도 않게 남겨 놓은 읍기. 때로는 그 갭이 너무 커서 블랙홀 에 빠진 것 같은 느낌까지 주는 책 읍기. 이 읍기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의 다른 책들을 기다리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문화에 힘입어 능동적으로 숨은 그림 찾기 또는 보물찾기를 하는 우리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메타버스를 작동시키는 화면의 버튼을 꺾을 때, 성경책을 덮었을 때, 즉 우리가 현실세계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이는 여전히 아프고, 어떤 이는 여전히 실업상태이며, 내야 할 고지서들은 책상 앞에 여전히 쌓여 있을 지도 모른다.

읍기는 의인을 향한 신의 가혹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이 부대끼는 책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면하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데면데면한 관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보았다. 반면, 이런 하나님의 비정함을 성토했고 돌아서 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그분과 비대면의 상태로 들어가는 관계의 단절을 겪게 된다. 읍기의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36) 이러한 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서양 철학사를 통해 고찰하고 있는 김상록의 연구는 필자가 연구하는 읍기의 심층의미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김상록, “주노 변증법에서 사제 변증법으로 (2): 레비나스의 헤겔 비판에 관한 소고,” 『철학사상』 65 (2017), 59-90.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사라진 욕기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며 이 책을 읽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욕기 저자가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던져 놓은 질문, “하나님,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저는 당신의 마음 속 어디에 있었습니까?”를 이제는 우리가 받아서 질문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 아침이 아닌, 강요된 분위기에 밀려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신학. 더 이상 나를 폄하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데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척하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신학. 고난 그 자체도 아픔이지만,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역시 그 못지않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임을 깨달은 우리들이, 뒤에 오는 후배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신학. 이것이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욕기를 다시 열어보게 되는 독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신학이다.

<주요어>

메타버스, 주-종 관계, 동반자관계, 쉬어읽기, 욕, 욕기의 하나님, 사탄, 순전함

<Key words>

Meta-Verse, Mastership, Companionship, Narrative Pause, Job, The God of the Book of Job, Satan, Integrity

* 접수일 2022년 3월 30일, 수정일 2022년 4월 9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15일

참고문헌

- 김동인, “광염소나타,” 『중외일보』 연재 (1930, 1, 1-1, 10); 『한국 근현대 문학선집』, 포르투나, 2020.
- 김상록, “주노 변증법에서 사제 변증법으로 (2): 레비나스의 헤겔 비판에 관한 소고,” 『철학사상』 65 (2017), 59-90.
- 서성은, “메타버스 개발동향과 발전전망 연구,” 『한국 HCI 학술대회』 (2008), 1450-1478.
- 이경재, 『욥과 케 보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장상현, 계보경,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의 교육적 적용,” 『Review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지)』 5:2 (2007), 79-85.
- 하경택, “욥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1:4 (2015), 264-301.
- 현창학, “욥기 1-2장에 나타난 욥의 고난의 성격,” 『신학정론』 36:1 (2018), 87-108.
- Agamben, Giorgio, *The Omnibus Homo Sacer*, trans. Lorenzo Chiesa and Matteo Mandarini,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
- Balentine, Samuel E.,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Understanding the Biblical Archetype of Patience*, Columbia, SC: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15.
- Balentine, Samuel E., *“Look at Me and Be Appalled”: Essays on Job, Theology, and Eth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90, Leiden: Brill, 2021.
- Butler, Judith, “Precarious Life; Indefinite Detention,” <https://www.guan-tan amobaymuseum.org>
- Clines, David J. A., “Why Is There a Book of Job, and What Does It Do to You If You Read It?” in *The Book of Job*, ed. W. A. M. Beuken, BETL 114,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4, 1-20.
- Clines, David J. A., *Job 1-20*, WBC 17, Dallas: Word, 1989.

- Dawson, Kirsten, “‘Did Not He Who Made Me in the Belly Make Him, and the Same One Fashion Us in the Womb?’ (Job 31:15): Violence, Slavery, and the Book of Job,” *Biblical Interpretation* 21 (2013), 435-468.
- Day, Peggy L., *An Adversary in Heaven: śātān in the Hebrew Bible*, HSM 43,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Driver, Samuel Rolles and George Buchanan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ICC, New York: Scribner’s Sons, 1921.
- Elliott, Susan M., “John 15:15—Not the Slave But Friends: Slavery and Friendship Imagery and the Clarification of the Disciples’ Relationship to Jesus in the Johannine Farewell Discourse,” *Proceedings: EGL & NWBS* 13 (1993), 31-46.
- Francis, Hattie, “American Slave Narratives and the Book of Job: Frederick Douglass’s and Nat Turner’s Quests for Scriptural Authority and Authenticity,” Master Thesis,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2014.
- Girard, René, *Job the Victim of His People*, trans., Yvonne Freccero,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1987.
- Glahn, Philip, *Bertolt Brecht*, London: Reaktion Books, 2014.
- Habel, Norman C., *The Book of Job*,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 Hamilton, Victor P., “Satan,” *ABD* 5 (1992), 985-989.
- Kafka, Franz, *Der Process*, Berlin: Verlag Die Schmiede, 1925.
- Konstan, David, “Problems in the History of Christian Friendship,”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4:1 (1996), 88-113.
- Kristeva, Julia,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L. Roudie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 Lukács, Georg, *The Theory of the Novel: A Historico-Philosophical Essay on the Forms of Great Epic Literature*, trans. Anna Bostock,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71.
- Maharg, Paul, *Transforming Legal Education: Learning and Teaching the Law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 Melville, Herman,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Street*, Lexington, KY: Seven Treasures Publication, 2009.
- Middleton, J. Richard, *Abraham's Silence: The Binding of Isaac, the Suffering of Job, and How to Talk Back to God*, Ada: Baker Academic, 2021.
- Newsom, Carol. A.,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Oliveira, Miguel, "The Role of Pause Occurrence and Pause Duration in the Signaling of Narrative Structure," *Part of the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Book Series*, LNCS, volume 2389.
- Patterson, Orlando, *Slavery and Social Death*, Cambridge, M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Pope, Marvin H., *Job: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AB 15, Garden City, NY: Doubleday, 1973.
- Stephenson, Neal. *Snow Crash*, New York: Bantam Books, 1992.
- Stokes, Ryan E. "Satan, Yhwh's Executioner," *JBL* 133:2 (2014), 251-270.

<초록>

데면데면, 비대면, 대면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 다시 읽는 율기-

김수정

(Central Seminary)

이 글은 사탄의 도전적 제안에 아무 반론 없이 당신의 종 율에게 고난을 허락한 율기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소논문이다. 율기는 의인을 향한 신의 가혹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이 부대끼는 책이다. 그러나 이것을 대면하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데면데면한 관계로 접어들게 된다. 동시에, 하나님이 비정하다며 성토했고 돌아서 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그분과 비대면의 상태로 들어가는 관계의 단절을 겪게 된다. 율기의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사라진 율기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며 이 책을 읽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율기 저자가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던져 놓은 질문, “하나님,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저는 당신의 마음 속 어디에 있었습니까?”를 이제는 우리가 받아서 질문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신-인간관계를 묻는 이 질문은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다는 물음 이전에 물어야 할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면, 율기의 장르와 집필의도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필자는 메타버스 개념을 도입하여 율기의 도입부를 읽을 것이다. 논문의 논지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율기, 메타버스, 광염소나타>에서 우리는 가상현실 개념을 이용하여 천상회의를 중계방송 하듯 보여주는 율기의 도입부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읽음으로써 율기의 장르를 새롭게 이해할 것이다. <“네 손에 맡기노라” : 상황적 딜레마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인

가? 주-종 관계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인가?>에서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 욱을 전무후무한 고난에 빠지게 한 야훼의 결정에 대해 두 개의 이론을 대비하면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쉬어 읽기 시간에 만나는 새로운 관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에서 우리는 욱기의 하나님을 이해할수록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신학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고민한다. 욱기가 정경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는 요한복음 15:5의 구절이 암시하듯, 욱기가 지적하는 신-인간관계를 넘어서 욱기가 꿈꾸고 지향했던 신-인간관계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Abstract>

**Indifferent, Disconnected, and Encountering:
Rereading the Book of Job in the Meta-Verse Era**

Soo Kim Sweeney
(Central Seminary)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God of the book of Job who allowed suffering to his innocent servant without any objection to Satan's challenging proposal. The book of Job is tough enough because it shows a severe judgmental aspect of God toward the righteous. However, when we give up on encountering this truth, our relationship with God would fall into an indifferent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if we are satisfied with pointing out this fact, we would leave God and have no connection with him. To encounter the God of the book of Job may mean to read the book with pondering the author's genuine intention from this weird story. This task also encourages us to be an inquirer by continuing the author's question: "O God, where did you put me in your heart when you made this horrible decision?" This question is more fundamental than "Where were you in my suffering?" since it directly asks about the God-human relationship to the suffering-giver.

The article consists of three subdivisions. In <The Book of Job, Metaverse, Sonata of the Fierce Flames>, we will understand the genre of the book of Job with the concept of virtual reality or Meta-Verse. In <"All That He Has in Your Hand": Is an Inevitable Choice Driven by a Situational Dilemma?

Or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Master-slave Relationship?>, we will examine YHWH's hidden motive for that decision with the two contrastive theories. In <New Encounter in the Narrative Pause: "I Called You Friends">, we will contemplate what kind of theology would be still available to us who find ourselves stuck in a dead-end from the reading. Here, we will consider the canonical position of the book of Job from a macro perspective. As John 15:5, "I called you friends," suggests, we will carefully probe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that the book of Job dreamed of beyond his era.